

전북신협, 1신협 1아동 후원금 전달식 진행

임직원 대상 미래전략세미나 개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결연사업설명 전북 47개 신협·47명 아동연결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전북지역본부 4층 교육장(전주시 덕진구 소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 이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와 2025년 1신협 1아동 결연후원사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날 전북신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래전략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결연사업설명 이후,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1신협 1아동 결연후원을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역 내 취약아동을 후원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전북지역본부 4층 교육장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 이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와 2025년 1신협 1아동 결연후원 사업을 진행했다.

전북신협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2023년부터 매년 정기결연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북지역 47개 신협이 참여해 47명의 아동과 연결되었다.

지원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총 5640만원의 성장,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전북신협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한 금액은 1억 5120만원이다.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최태일 회장은 "학교에서는 문제를 어른들이 걱정할 일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신협이 스케치북을 제공하고자 한다" 밝혔다.

/오상근 기자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최적경과대역 결정

지난 6월 12일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제5차 입지선정 위원 회의(이하 입선위)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을 확정·의결하였다.

이번 5차 입선위에서 결정된 최적경과대역은 입지선정 전체 과정 중 중간 단계로 향후에는 경과대역의 지역 주민대표들로 재구성된 입선위를 통해 2025년 12월까지 최종 경과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 위주로 시행되던 사업설명회를 경과대역 마을 단위의 찾아가는 밀착형 사업설명으로 변경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해 잘못 알려진 오해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과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방안 및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알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전은 新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기조에 맞춰 국가 기간망 적기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참고로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은 부안·고창군 해역의 해상풍력 발전전력 2.4GW를 양육점(부안)에서 신정음변전소(정읍)까지 연결하는 송전선로(약 40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바이오기업, 美 KASBP 춘계 심포지엄 참가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분야 6개사, 미국 현지 IR 발표·글로벌 네트워킹 추진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서 개최되는 '2025 제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춘계 심포지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바이오기업 6개사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전북 보스턴 오픈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적 R&D 협력과 기술기획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제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Korean American Society in Biotech and Pharmaceuticals)는 2001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미국 전역의 바이오 및 제약 산업에 종사하는 한인 과학자, 연구자, 기업인, 정부기관 관계자 등 약 25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한미 간 제약·바이오 산업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로 37회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임상 개발 성공 전략: 규제 장벽 극복 및 혁신 추진(Strategies for Success in Clinical Development: Overcoming Regulatory Hurdles and Driving Innovation)'을 주제로, 힐튼 워싱턴 DC/록빌 호텔에서 양일간 개최된다. 미국 FDA를 비롯해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 기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규제 트렌드와 혁신 전략을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메디엔리서치, 메디코스바

이오텍, 플라스바이오, 바스젠바이오), △바이오의약품 분야(바이엘), △의료기기 분야(바이오랩) 등 총 6개 기업이 참가하며, 미국 내 유수의 투자자, 기술 자문단, 과학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IR 발표를 진행하고, 자사의 특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적극 소개했다.

또한 심포지엄 기간 동안 현지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문가 사전 매칭 및 현장 대면 컨설팅, △기업별 IR 발표, 포스터 세션 참여 및 Job Fair 참가, △인허가 대응을 위한 FDA 특별 세션 참석, △전북특별자치도 참가기업 전용 디렉토리 북 배포, △전시 및 홍보 부스 운영 등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기업의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 집중호우 속 신속 대응 빛났다... '골든타임' 긴급복구

저수지 제방 유실에도 '무피해' 한 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신속 대응 빛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114mm)로 중랑저수지(군산시 개정면 위치) 제방 유실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인명과 재산 피해

없이 응급 사태를 조기에 수습했다.

전북지역본부는 호의주의보 발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고, 매뉴얼에 따라 당일 긴급복구를 신속히 완료하여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김동인 본부장은 "휴일 중 발생한

사고로 자재와 장비동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 및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평상시 실시한 비상대처 훈련 덕분에 신속히 복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텐, 베트남 진출 초석 마련

전북자치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현지 진출 도움

도내 기능성 식품기업인 바이오텐(주)(대표 김영철)의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사업 전개가 기대되고 있다.

수용성 식품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바이오텐(주)은 커뮤민 수용화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텐큐민에스플러스(TSP)' 등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 중이다.

최근 바이오텐(주)은 현지 의료 및 제약 원료 유통 전문기업인 Vimedimex VN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지난 5월 8일부터 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제약박람회 '2025 Medi-Pharm Hanoi'에 초청기업 자격으로 참가가 계기가 됐다.

Vimedimex VN은 베트남 전역에 병원 및 약국 유통망을 보유한 전문 기업으로, 향후 바이오텐(주)의 제품군 유통과 공동 마케팅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베트남 해외통



상거점센터(이하 '베트남 센터')가 현지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하노이에 위치한 전북 베트남 센터가 현지 기관과의 사전 협의, 불역 및 실무 조율, 행사 일정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기업이 제품 설명과 기술 제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현지 전시회 참가와 바이어 연계를 통해 바이오텐(주)은 제품 효능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베트남 시장 내 신뢰 기반의 유통 관계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엄격한 베트남 시장 특성상 사전 인증 절차와 유통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센터의 초기 지원이 주효했다.

/오상근 기자

한라산 초지에 생태 친화적 순환 방목

농진청, 제주 흑우 암소 30여 마리 6~9월 시범 방목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제주 흑우' 암소 30여 마리를 9월까지 약 4개월간 한라산 중산간 해발 500~800미터 초지 55헥타르에서 방목한다고 밝혔다.

'제주 흑우'는 털이 검은 한우 품종으로, 기원전부터 제주 지역에서 사육해 온 우리 고유의 재래 가축이다.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 탐라기원 등 여러 고문헌에는 제왕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다.

한우, 협소, 교잡우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혈통을 보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방목으로 제주 흑우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 방목을 했을 때 축사 사육 대비 에너지 소비가 15~50% 가량 증가했고, 소의 근골격계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이 높아졌다.

또한 체식 시간도 약 6시간 더 길어져 하루에 약 60~70kg의 신선한 풀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80%의 수분을 함유한 생초는 전해질 균형,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등 생생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생초 건물량의 50~70%를 차지하는 탄수화물과 10~25%의 단백질,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별도의 배합사료 없이도 충분한 영양 공급원이다.

특히 생초에 풍부한 섬유소는 소의 반추위에서 미생물 발효를 촉진하고 주요 에너지원인 휘발성 지방산(VFA)으로 전환된다.

이는 소의 에너지 요구량 60~80%를 충족하며 소화 기능과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 나이가 타액 분비를 돕고 장 운동성을 개선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